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저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제언 -국내외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A New Evaluating System for Academic Book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Korea

-Based on the Cases of Korean and Overseas Universities-

이영화

선문대학교 영어학과

Younghwa Lee(yhlee831@sunmo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내 인문사회학 학술저서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27개 대학의 교수업적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와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은 보통 등재지 논문보다 국내 전문학술저서에 약 2배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학마다 기준이 다양하였다. 미국의 대학은 정형화된 학술저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신 권위 있는 출판사가 출판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독립된 기관인 REF와 HCERHE를 통해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반면, 일본은 주로 학과평가를 하고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다. 국내연구자의 약 84%는 학술저서의 외부 평가를 선호하였다. 개선안으로 평가 주체를 현행 대학에서 학회로 변경하고, '200쪽 이상의 분량과 ISBN'의 외적 요건과 함께 질적평가를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 학회, 한국연구재단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200-600점으로 저서에 대한 점수를 차등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인문사회학 | 학술저서 | 평가시스템 | 질적 평가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evaluating system for academic book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Korea. The data comprised the evaluating systems for researchers' academic achievements at 27 Korean and overseas universities, and questionnaire from researchers. The findings showed that academic books were rated higher twice than articles in Korean universities with various criteria. Universities in the US had no standardized systems, but publishers evaluated academic books. The UK and France had authorized organizations, REF and HCERHE, to evaluate researchers' products, whereas, in Japan, departments evaluated them without fixed systems. About 84% of Korean researchers preferred external evaluation on academic book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ssociations' evaluation, 'more than 200 pages and ISBN', and qualitative approach. 200-600 points can be given on books in the correlation of universities, associations, and Korea Research Foundation.

■ keyword :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cademic Books | Evaluating System | Qualitative Approach |

I. 서론

국내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인문사회학의 고유한 학문적 특성이 보다 적절하게 업적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인문사회학의 발전이 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문사회학이 진정한 인간 정신과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활동과 소통의 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자들로 하여금 논문 작성 중심의 연구에서 저술 중심 연구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1]. 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저술 인정비율을 2014년도부터 상향(단독저서 200%→300%, 공동저서 100%→200%) 조정할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논문에 관한 업적평가 기준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따라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저서에 관한 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하고 기준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 기준이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인문사회학 저술에 관한 안정적 평가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저서평가는 인문사회학을 더욱 융성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의 업적물 평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분야 학술성과 등 일반적인 연구 영역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나 단일 학문 분야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학술저서 평가를 위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인문사회학 학술 저서에 관한 평가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a) 국내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 (b) 해외 대학의 학술저서 평가 방식과 운영,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가?
- (c) 학술저서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과

견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인문학과 학문 분야

인문학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어 왔으나 그 변천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인문학의 정체성 확보는 19세기경이며, 이때부터 자연과학과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인문학은 인문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인문’이란 용어가 다소 모호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정의와 범위를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진흥 사업을 위해 제시한 인문학의 범위는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으로서의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 고고학, 민속학’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연구지원 및 진흥 대상인 인문학은 ‘인접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예술, 복합학’ 등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3].

원래 ‘인문학’은 영어 ‘humanities’의 번역어이며, ‘humanities’는 라틴어 ‘humanitas’의 복수형인 ‘humanitatis’로부터 유래한다. ‘humanitas’는 ‘인간다움’이라는 뜻이며, 기원전 55년에 키케로의 웅변가 양성 과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한자 문명권에서도 humanities에 해당하는 학문 활동이 있었다. 주역(周易)의 『비괘(賁卦)』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 ‘인문학’이 ‘humanities’의 번역어인 것을 고려하면, ‘humanity’, ‘humanitas’, 그리고 ‘인문’이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용어는 모두 ‘인간’이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 또는 ‘인간다움과 문화’ 정도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4].

이렇듯 인문학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며 인간의 마음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은 관심 영역에 따라 문학, 사학, 철학 등의 개별 학문들로 분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학은 규정된 인간의 삶을 묘사, 이해, 해석하는 반면, 사학은 인간의 삶을 기술, 이해, 해석한다. 철학은 규정된 인간의 삶을

정의, 이해, 해석하는 학문이다[5].

그러므로 인간의 과거를 기술, 규정하여 현재의 인간을 비판, 반성하고 미래의 인간을 예시, 제안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학의 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자기규정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2. 사회과학과 학문 분야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s)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經驗科學)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과 자연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을 구별하는 기준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이 자연의 그것과는 달리, 일정한 인위적·창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자연과학(自然科學, natural sciences)의 영향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1].

사회학의 학문적 성립이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과학’이라는 명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의 사회주의적 사상에서 ‘사회’나 ‘사회적’ 등의 용어가 유행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이론이 유일한 사회과학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6].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사회과학의 학제 분류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과학 중분류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을 포함하여 총 23개 분야에 이르며, 이 중 지리학, 지역개발, 지역학을 통합하고, 행정학과 정책학을 통합하면 총 19개의 분야로 나뉘어진다.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와 문화의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 영역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문의 실용화와 사회적 수용의 확산을 위해 적실성 있는 연구 분야와 내용을 갖추는 일이다[6].

3. 저서의 정의와 구분

저서는 (i) 학술저서, (ii) 교재, (iii) 번역·주석·사전, (iv)편저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학술저서는 국내전문 학술저서와 국제(국외)전문 학술저서로 분류하였다. 먼저, 전문 학술저서는 학위논문에 준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춘 것으로 기존 이론에 관한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저자의 독창적 이론과 학설이 일관된 체계에 의해 기술되고 전공 분야의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로 정의한다[1]. 교재는 해당 전공 분야에 관한 저술로 중·고교 및 대학 전공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서적 혹은 교과서를 지칭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검인정 초·중등 교과서, 대학교양교재, 전공교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번역·주석·사전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다. 번역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서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저술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출판된 것으로 정의된다. 주석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로서 이야기, 서술, 설명, 해석을 한 저술을 의미한다. 사전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각종 어학사전 및 전문학술용어사전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편저는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 창작물 등을 묶어 편집하여 출판한 결과물로 규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국내 대학의 사례 수집

대학별 저서평가 사례 수집을 위해 국내 대학을 지역별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대전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국공립대, 사립대, 그리고 특수목적대 등 형태별로 구분하였다. 총 17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은 지인 학자들을 통한 개인적인 요청, 담당 부서와 전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해외 대학의 사례 수집

해외대학의 주요 대상국은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

투어지고 있는 동서양의 선진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에 소재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i) 미국의 4개 대학 (Harvard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ii) 영국의 2개 대학 (Imperial College London, Lancaster University), (iii) 프랑스의 1개 대학(Université de Lorraine), 그리고 (iv) 일본의 3개 대학 (토요대학 東洋大學, 토카이대학 東海大學, 오사카대학 大阪大學)을 포함한 총 10개 대학이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첫째, 해당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학과장, 및 학장들과의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교환이었다. 둘째, 대학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7].

3. 설문조사

한국 내 을 포함하여 전 분야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4년 10월 총 9차례에 걸쳐 64,877명의 연구자에게 발송되었고, 이중 1,388명이 응답하였다.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i) 참여자 정보, (ii) 저서 평가의 필요성, (iii) 평가주체, (iv) 평가기준, (v) 평가내용, (vi) 평가절차, 그리고 (vii) 저술 권장방안 등 총 7가지 영역이 포함되었다. 설문 결과는 국내 학술저서 평가 방안을 위한 중요한 토대와 근거로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국내대학의 학술저서 평가 현황

국내 학술저서 평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논문과 저서간 배점 비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후보지(이하 후보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이하 등재지), 국제일반, SCOPUS, SSCI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저서의 경우, 국외전문학술서적, 국내전문학술서적, 교재(전공대학교재 및 초중등교과서), 번역(전공학술 및 문예창작)/주석/사전, 그리고 편저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등재지 논문 100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표 1-표 3]은 국립대, 사립대, 특수목적대의 논문과 저서간 배점을 각각 환산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국립대: 논문과 저서간 배점

〈국립대〉		A대	B	C대	D대	E대	F대	G대
평가	등재후보지	53	67	75	50	80	47	N/A
	등재지(기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일반	47	53	100	100	60	67	40
	SCOPUS	167	133	N/A	167	130	100	100
	SSCI 급	333	200	200	167	200	200	150
저서	편저	33	100	38	100	40	33	N/A
	번역, 주석, 사전	67(번역)	67	100(전공) 38(사전)	167(번역)	100(번역)	80	150(번역)
	교재	20	100(전공) 67(중등)	88	100	150(대학, 초중등)	67	50(초중등)
	국내전문 학술저서	100	167	125	167	150	133	200
	국제전문 학술저서	133	200	N/A	N/A	250	266	250

표 2. 사립대: 논문과 저서간 배점

〈사립대〉		H대	I대	J대	K대	L대	M대	N대
평가	등재후보지	67	N/A	77	70	100	67	N/A
	등재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일반	67		115	100	33	53	N/A
	SCOPUS	160(인문) 140(사회)	750-100(7단계)	N/A	N/A	133	133	125
	SSCI	267		154	300(인문) 250(사회)	200	400-200(2단계)	150
저서	편저	53	50	77	50	20	67	N/A
	번역, 주석, 사전	133	200-100(3단계)	N/A	150(번역) 200(사전)	67	133(한-영) 67(영-한)	75
	교재	53	100(대학) 50(중등)	77	50	N/A	67(대학) 40(중등)	N/A
	국내전문 학술저서	233(인문) 200(사회)	500-175(4단계)	231(대학)	200	133	100	50
	국제전문 학술저서	N/A	900-200(5단계)	308	300	167	133	N/A

표 3. 특수목적대: 논문과 저서간 배점

〈특수목적대〉		O대	P대	Q대
평가	등재후보지	50	66.7	100
	등재지	100	100	100
	국제일반	N/A	100	63
	SCOPUS	N/A	133	300
	SSCI 급	200	385-200(2단계)	300
저서	편저	N/A	67(국제)-47(국내)	300(전공) 200(교양)
	번역, 주석, 사전	N/A	67(번역) 47(주석) 53(사전)	100(전공) 63(교양)
	교재	N/A	0	N/A
	국내전문 학술저서	200	100	200
	국제전문 학술저서	400	133	600

위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학마다 논문과 저서간 배점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등재지 논문보다 국내전문학술저서에 대체로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며, 그 비율은 평균 약 2배 정도이다. 하지만 저서에 최대 5배의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I대) 반면, 논문과 저서간 배점이 동일하거나(A대, M대, P대) 심지어 0.5배인 경우(N대)도 있었다. 둘째, O대학의 경우처럼 특수목적대가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서에 대한 배점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는 학문 영역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셋째, 수도권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학술저서에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저서의 등급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학문 계열 내 세부 전공에 따라 점수를 달리하고, 국내와 국외저서를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학술저서의 종류가 대학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국제전문학술저서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는 대학(C대, D대, H대, N대)이 있는 반면, 국내와 국제 저서를 각각 4단계와 5단계로 세분하여 큰 배점 차를 두는 대학(I대)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학문 영역에 따른 다양한 평가 기준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해외 대학의 학술저서 평가 현황과 사례

2.1 미국

미국대학에서 학술저서의 출판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들의 경우, 정년심사를 위해 학술서적 1권과 논문 2개 정도를 요구하는데, 논문 수가 많더라도 학술저서가 없다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 학술저서 평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나 대학의 평가시스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제시된 여러 대학 교수들의 이메일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We feel strongly that the quality of the work [publication] is what should be measured, and that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experienced judgment of philosophers on this matter.

(Harvard University 철학과 학과장)

There is not a particular objective reference we use to evaluate a manuscript. There are unwritten rankings that we use to make an evaluate e.g., a scholarly press is better than a vanity press.

(Indiana University 인문대학장)

What is important to us is the quality of the papers, as judged by our own reading and by the readings of these people whom we trust.

(Princeton University 철학과 교수)

저서의 질적평가가 매우 중요시되며, 평가는 학문적 공신력을 지닌 외부 평가자 혹은 평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University of Colorado의 경우에도, 학술저서에 대한 평가 주체는 대학출판사(예. 하버드대학 출판사, 캘리포니아대학 출판사 등)이며, 평가 기준은 오히려 출판사가 결정한다. 이렇듯 출판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의 저서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학술저서 평가와 출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저서의 원고 제출: 출판사 -> (2) 초기 심사: 출판사 편집단-> (3) 출판비 입금: 출판사 -> (4) 저서 평가: 동료평가 -> (5) 수정 후 제출: 동료평가 -> (6) 표지 및 인쇄 형태 결정: 출판사 -> (7) 교정: 저자 -> (8) 인쇄 논의: 출판사 및 저자-> (9) 인쇄: 출판사

이러한 학술전문 출판사의 출판 과정을 거친 저서는 엄격한 평가를 마친 결과물로 여겨지는 까닭에 대학이 별도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학술저서 평가가 정형화되지 않은 대신 학문적 경험이나 개별 연구결과물이 갖는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까닭에 개인 출판물인 비학술 자비출판물(vanity press)은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영국

영국은 매우 독특하고 오랜 명문화된 연구평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 모든 연구업적평가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영국고등교육재단(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이 주관하는 REF(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연구 우수성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 내 모든 대학이 이 체제를 따르는 까닭

에, 한 대학의 사례만으로도 전체 대학의 평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대학의 개별 학과는 특정 기간에 만들어진 연구업적물 중 가장 성과가 크다고 여겨지는 결과물을 4편 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연구 영역의 전문가 패널이 REF에서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적물을 평가한다. [그림 1]는 REF 기준을 제시하는 Imperial College London의 연구 결과물 보고에 관한 홈페이지 일부이다[8].



그림 1. Imperial College London의 연구결과물 보고

연구업적물은 양 보다는 질로 평가를 받는데, 별의 개수에 따라 질적 평가의 등급이 정해진다. [표 4]는 REF가 설정한 연구업적물에 대한 등급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9].

표 4. 영국 REF의 연구업적물 등급 기준

등급	내용
별 4개 (****)	연구의 창의성(originality), 중요성(significance), 정교함(rigor)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매우 탁월한 연구
별 3개 (***)	별 4개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구의 창의성, 중요성, 정교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
별 2개 (**)	연구의 창의성(originality), 중요성(significance), 정교함(rigor)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
별 1개 (*)	연구의 창의성(originality), 중요성(significance), 정교함(rigor)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인정되는 연구
분류 불가	국내에서 인정될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REF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과물

Lancaster University의 경우, 학술저서 1편은 학술지 논문 2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학술저서는 교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는 연구의 질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연구자들은 연구업적물의 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과 연구자들의 고충을 잘 드러내고 있다.

Within our department, we are obliged to produce certain number of publications each year or we are penalized in the workload model... Research monographs can be counted as equivalent to two articles... The claim is that this is done on the basis of the quality of the work itself, but we are all under pressure to publish journal articles rather than book chapters.

(Lancaster University 언어학과 교수의 e-메일)

학문적 역량의 집대성인 학술저서의 출판을 위해선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질적, 양적으로 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주도의 학술평가 제도에서 영국의 연구자들은 저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드는 논문에 더 치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프랑스

프랑스의 학술연구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영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며, 4-5년마다 연구 및 고등교육평가 위원회(High Council for the Evalu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HCERHE)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양적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개별 연구자가 아닌 집단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를 받는 집단은 4년 동안 2개의 “A-Class” 출판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는 과학학술서적(scientific books)과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s)에 게재된 논문이 포함된다. HCERHE의 결과는 연구자 개인의 승진보다는 해당 집단의 연구비 지원 또는 집단 간 통폐합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문학술서적의 출판이 중요하며 비학술저서는 연구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학술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의 인지도가 중요하다.

로레인대학교(Université de Lorraine)의 경우, 학술저서의 출판은 연구자의 상여금이나 승진과 관련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진 않다. 그 이유는 승진에 관한 국

가 규정과 개별 대학의 승진 인원에 유연성을 주기 위함이다.

2.4 일본

일본 대학의 경우, 교수의 연구업적보다는 연구서열이 승진이나 정년보장 심사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국내 대학과 유사한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요대학(東洋大學)의 경우, 교수들의 업적평가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가 정한다. 따라서 학문 영역에 따라 기준과 업적물의 양이 다를 수 있다. 학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며, 학술저서는 논문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다. 토요대학교 경제학과의 경우, 학술저서 1편은 학술지 논문 5편으로 간주되고 있다[10].

토카이대학(東海大學)의 경우에도 논문 및 저서에 대한 평가는 학과마다 다르게 산정되며 양적, 질적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국립학위 및 대학평가원(NIAD-UE)의 보고서인 "일본대학 내 교수 평가의 진전과 문제점 (Progress and problems of faculty evaluation system in Japanese Universities)"에 의하면, 일본 내 75~90%의 대학에서 학술저서를 연구업적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11]. 이는 모든 대학에서 학술저서를 연구결과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토카이대학의 경우, 토요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과 평가위원회가 업적을 평가하며, 양적, 질적 평가를 병용하고 있다. 전문학술저서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연구실적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오사카대학(大阪大學) 역시 학과평가위원회가 평가 주체가 되며, 업적물에 따라 다른 점수 부여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전문학술저서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양적평가를 주로 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평가 절차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연구 성과 결과가 연봉의 기준으로 되고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12].

3. 국내 학술저서 평가에 관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개선 방향

3.1 학술저서 평가의 필요성, 주제 및 절차

현재의 학술저서 평가 시스템에 대해 응답자의 56%(91명)는 '보통', 28%(46명)는 '불만/매우 불만' 이라고 응답한 반면, 16%(18명)만이 '만족/매우 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술저서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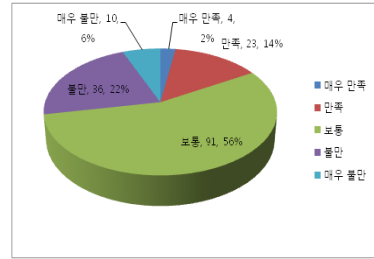


그림 2. 현 평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

학술저서 평가의 필요성으로는 (i) 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의 향상', (ii) '저서의 질적 향상', 그리고 (iii) '논문평가와의 형평성 조절'을 꼽았다[그림 3]. 따라서 저서 평가는 학문 발전과 저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지 연구자 개인의 업적평가와 연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견해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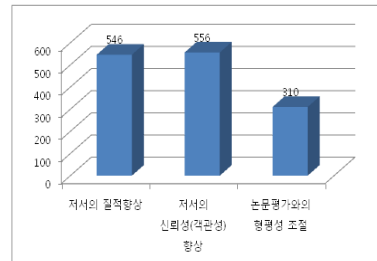


그림 3. 학술저서/저술평가의 필요성

연구자의 92%는 학회나 대학평가위원회가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학술저서 출판 환경이 다름을 감안하여 국내에 가장 적합한 평가 주제로 해당 분야의 학회를 제안한다.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회'가 학술저서 평가의 주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가 절차와 관련, 인문사회 응답자의 51%(360명)가 학회의 심사를 거친 저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점수를 부여받는 과정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16%(117명)는 대학의 심사를 선호하였다. 이는 저서의 평가주체로 전체응답자의 72%와 20%가 각각 학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관련 학회가 학술저서 평가의 중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2 학술저서의 기준과 요건

학술저서의 기준으로는, ‘200-300쪽 분량과 ISBN’에 응답자의 41%(287명)가 동의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 ‘100-200쪽 분량과 ISBN’과 ‘300쪽 이상과 ISBN’을 지지하는 응답은 각각 14%(99명)와 13%(91명)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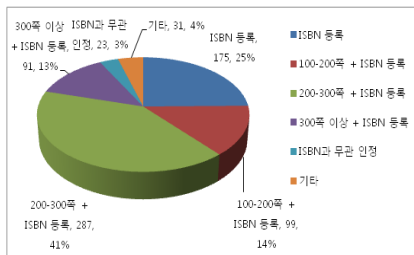


그림 4. 학술저서/저술 평가 요건

즉, 68%의 연구자들은 일정한 분량과 공식적인 절차를 충족시켜야 학술저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ISBN 등록’만으로도 학술저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25%(175명)나 되어 분량에 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업적평가의 학문적 특성을 무시하고 정량평가가 위주로 시행되어 온 까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서의 요건으로 일률적인 페이지수와 ISBN을 요구하기보다는 학문 영역에 따른 질적 평가를 실시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200쪽 이상의 최소한의 분량과 ISBN을 갖춘 상태에서, 저서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술저서의 양적인 면을 충족시키면서 우수 학술저서 출판 활성화를 위한 질적 평가도 병행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학술저서의 점수

앞의 결과에서, 등재지 논문 100 기준 시, 학술저서 200이상의 가중치 비중에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80% 이상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이 논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비해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술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와 국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서에 관한 새로운 점수 체계를 제안한다. 즉, 독창적 이론과 학설을 포함하는 학술적 기여도의 순으로 구분하여 국제전문학술저서 > 국내전문학술저서 > 일반저서(번역서 포함)로 점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표 5].

표 5. 학술저서의 점수 제안

기준 등재지 논문: 100	저서 종류	점수
	(패널심사) 재단인정 우수 국제전문학술저서	600
(패널심사) 재단인정 우수 국내전문학술저서	500	
학회 인정 국내전문학술저서 A	400	
학회 인정 국내전문학술저서 B	300	
대학인정 학술저서(번역서 포함)	200 (재량주)	

주) 대학인정 학술저서(번역서 포함)의 점수는 대학 재량에 따른다.

예를 들어, ① 대학인정 학술저서(번역서 포함)는 200점, ② 학회 인정 국내전문학술저서 B는 300점, ③ 학회 인정 국내전문학술저서 A는 400점, ④ 패널평가를 거친 연구재단 우수 국내전문학술저서는 500점, ⑤ 패널평가를 거친 연구재단 우수 국제전문학술저서는 600점으로 산정한다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질적 평가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저서의 질적 평가와 단계별 심사를 바탕으로 학술저서의 점수를 등재지 논문 대비 최대 6배까지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자들이 양질의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재단의 저서 평가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인문사회학 학술저서 평가를 위한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이는 연구 분위기, 학계의 풍토, 그리고 출판업계의 역할과 위상이 외국과 다른 상황에서 현행 학술저서 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형 학술저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우선, 학술저서 평가의 주체를 현행 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학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는 대학 내부의 평가가 연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학술저서의 요건으로는 '200쪽 이상의 분량과 ISBN'을 갖추는 외적 요소의 충족과 더불어 질적 평가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영국의 사례와 국내 연구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학술저서의 점수를 100점에서부터 600점까지 세분화함으로써 대학, 학회, 한국연구재단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평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학술저서 평가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인문사회학의 학문적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저서평가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보다 많은 사례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술저서에 관한 나라별, 대학별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13]. 특히, 해외 대학의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정연경, 최윤경, “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42권, 제3호, pp.211-233, 2011.
- [2] 위행복, “인문학분야 학술성과 평가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4.
- [3]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07년 인문학진흥사업 사업 설명 자료집,” 제1권, 2007.
- [4] 조동일, *인문학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09-211, 1997.
- [5] 손영삼, “인문학 진흥의 토대에 관한 연구,” 대동

철학, 제57집, 2011.

- [6] 김종미, “GM에 대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동향,”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7권, 제3호, pp.175-193, 2013.
- [7] 이영화, 김선재, “영어 능력과 국가 경제 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329-339, 2011.
- [8] <http://www.imperial.ac.uk/research-and-innovation/about-imperial-research/ref/background/assessment/research-outputs/>
- [9] www.ref.ac.uk
- [10] <http://eco.toyo.ac.jp/ank/sougouhyouka.pdf>.
- [11] http://www.niad.ac.jp/ICSFiles/afieldfile/2010/01/05/no9_16_shimada_no10_04.pdf.
- [12] http://www.osaka-u.ac.jp/ja/guide/information/joho/files_hyouka/100324655954e18a554fa169828981_finalized-1.pdf.
- [13] 김선재, 이영화, 임광혁, “인적자본 형성으로서의 교육 투자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pp.315-326, 2010.

저자 소개

이영화(Younghwa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8년 11월 : University of Portsmouth, UK(응용언어학 및 TEFL 석사)
- 2003년 10월 : Lancaster University, UK(언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영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작문교육, 작문 피드백, 융복합 연구